

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Vol. 43, No. 2, December 2022
<http://dx.doi.org/10.26426/KCS.2022.43.2.3>

한국 근대유산의 인식 및 활용을 둘러싼 입장과 쟁점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사례 —

전종한*

국문 요약

일반적으로 탈식민국가에서는 근대유산의 인식이나 활용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상존한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인천육군조병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은 전쟁용 무기 고안과 제작, 보관 등을 위해 건설된 일제의 8대 조병창의 하나이자 본토 밖에 조성된 두 곳의 조병창 중 하나로 1941년에 개창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은 경인철도 부평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산곡리 일대 광활한 평지에 입지하였다. 1940년대 인천육군조병창은 서로 전후방 연계로 결합된 다수의 업체들과 함께 대규모 군수산업단지를 형성하였으며, 국가 스케일에서 보면 경인시가지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부평 지역에 계획된 근대 도시계획 지구의 하나였다. 오늘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잔존 경관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인천육군조병창 잔존 경관의 가치 평가와 보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입장차와 갈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입장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 중 하나는 관련 개념과 이론의 동원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잔존 경관은 식민지배 유산이자 근대산업유산이고 동시에 전쟁유산이므로 복수의 유산 범주로 조망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통도시경관과의 대비 및 국토 공간의 재구조화를 야기한 근대도시경관의 형성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용도 지구와 경관 요소를 통시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eographical@hanmail.net

이러한 개념과 이론에 입각한 접근은 향후 유산의 가치 인식, 활용 방향의 재 설정,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에서 중요하다. 탈식민국가에서 식민지 근대유산, 그 중에서도 산업유산에 접근하는 관점은 구(舊)제국주의 국가였던 서양 여러 나라나 일본의 그것을 단순 차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탈식민국가, 인천육군조병창, 잔존 경관, 근대유산, 근대산업유산, 근대도시경관, 세계유산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탈식민국가에서는 근대유산의 인식이나 활용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상존한다. 이것의 본질적 이유는 무엇보다 탈식민국가의 근대이행기가 대체로 식민지 치하라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경험들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탈식민국가에서 근대이행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유와 풍요의 희망을 품었던 서양 제국들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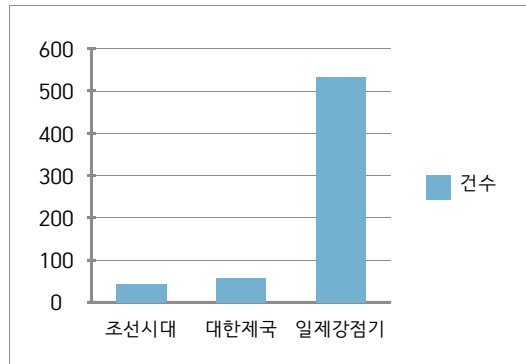
탈식민국가의 경우, 근대이행기와 대략 겹쳐 있는 식민지 시기의 잔재를 과연 ‘근대유산(modern heritage)’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유산’이 되는 것인지, 결국은 식민자(colonizer)의 유산인 것은 아닌지와 같은 원초적 문제들부터 논란이 일어난다.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유산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고, 유산 가치는커녕 삭제해야 할 어떤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하나의 헤리티지로 인식하고 지정하는 과정은, 사회적이고, 종종 경제적이며, 어떤 경우는 정치적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제의 잔재에 대해 이미 ‘유산(heritage)’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국가문화유산 분류 체계에서 일제가 남긴 주요 잔존 경관(relic landscape)은 개념상 ‘근대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법적으로는 ‘등록문화재’의 범주로 등록되고 있다(그림 1).¹⁾ 제주특별자치도의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사라봉, 어승생악, 가마오름, 서우봉, 셋알오름, 일출봉 해안, 송악산 해안, 송악산 외륜 등지의 일제 동굴 진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와 고사포진지, 모슬봉 및 이교동의 일제 군사시설 등이 그 예이다.

일찍부터 인천광역시나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등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일제강점기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heritage.go.kr>)/문화재 정책 Q&A/문화재, 이것이 궁금해요/국가등록문화재

의 주요 건축물과 시설, 도로, 특정 구역이나 장소 등을 ‘한국 최초의 근대’, ‘근대 문화’, ‘근대 거리’, ‘근대 골목’, ‘근대 풍경’ 등으로 포장하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 상품으로도 재창출해왔다.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이러한 ‘근대적’ 상품의 대부분은 문학, 금융, 음식 등 상대적으로 일상적 삶의 영역에 가까운 낯익은 것들로서, 그에 접근함에 있어 어떤 첨예한 긴장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무기 생산 기지였던 인천육군조병창 사례는, 식민 치하에서 겪었던 불행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민감하게 연루되어 있기에 근대유산을 둘러싼 그간 표면화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들과 여러 쟁점을 노정한다.



[그림 1] 국가등록문화재의 건설·제작·형성 시기별 건수 (2022년 10월 기준)

오늘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하는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흔적은 아시아-태평양 전쟁기(1931-1945)에 일본이 해외에 건설했던 두 곳의 군수용 무기 생산 기지 중 하나로서, 일제의 군국주의(軍國主義)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잔존 경관이다. 본 연구는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 배경과, 일제의 경인일체화(京仁一體化)라는 큰 그림 속에서 조병창과 연계 관계로 결합된 부평지역 군수산업지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 다음, 근대이행기의 유산, 그 중에서도 ‘전쟁 유산’이자 ‘식민지배 유산’이고 ‘(군수)산업유산’이며 ‘근대도시경관 유산’으로서의 중층적 의미를 내재한 이곳의 특별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이곳 조병창의 잔존 경관에 접근하는 국가-제도적 관점과 시민사회의 여러 입장 및 쟁점을 고찰하고 향후에 필요한 선결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근대유산에 대한 서양의 일반적 관점과 다를 수 있는, 탈식민국가에서 보이는 근대유산에 대한 인식의 다면성 및 가치 평가의 특수한 맥락을 탐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2.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과 경인일체화(京仁一體化) 구상

1)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 과정 및 전후방 연계로 결합된 주변 공장들

조병창(造兵廠)이란 ‘군수용 무기를 구상하고 설계하며 생산하는 공장’을 뜻하며 일정기

간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 기능을 겸하였다. 소재지인 부평의 지명을 따서 종종 부평조병창으로도 불리는 이곳의 본래 명칭은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이다.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에 개창하였으며, 부평 지역의 제1제조소(第一製造所) 외에 평안도 평양에 평양제조소(平壤製造所)를 함께 관할하였다.

일제의 육군조병창 제도는 1923년에 기원한다. 하지만 그 이전인 1879년에 이미 일본은 본토에 도쿄 포병 조병창과 오사카 포병 조병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23년 이들 포병 조병창을 ‘육군조병창’으로 개칭 및 개편한 것이 일본육군조병창의 시작이다. 육군조병창의 주요 업무는 전쟁용 무기의 고안과 설계, 생산, 공장 관리 및 행정 업무였으며, 1923년 기준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 조병창이 운영되었다.

1933년에 이르면 1916년 이래 포병 병기를 생산했던 고쿠라(小倉)²⁾ 무기 공장이 조병창으로 확대 재편되는 등 1930~40년대를 지나면서 일제는 여러 지역에 무기 생산 공장 및 보급기지를 건설하거나 조병창으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 기준, 본토에서는 도쿄 제1육군조병창(東京第一陸軍造兵廠), 도쿄 제2육군조병창(東京第二陸軍造兵廠), 사가미 육군조병창(相模陸軍造兵廠), 나고야 육군조병창(名古屋陸軍造兵廠), 오사카 육군조병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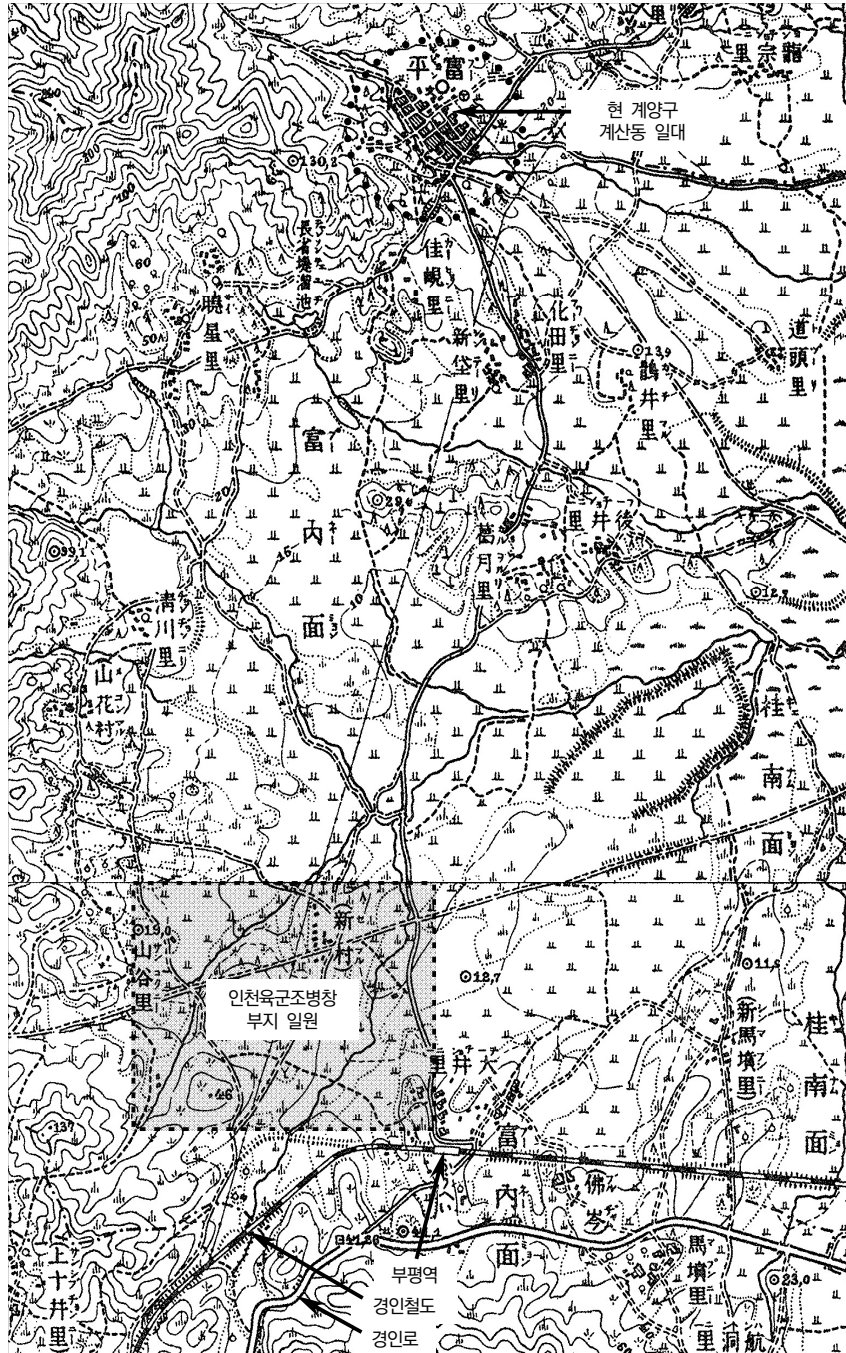
(大阪陸軍造兵廠), 고쿠라 육군조병창(小倉陸軍造兵廠)을, 그리고 해외의 경우는 한반도의 인천 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과 만주(滿洲) 봉천(奉天)³⁾의 남만 육군조병창(南滿陸軍造兵廠), 이렇게 총8개소의 육군조병창을 운영하였다(그림 2).

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강점기 경성과 인천 사이의 광활한 평지였던 경인철도 부평역 인근의 산곡정(山谷町) 일대에 들어섰다(그림 3). 이곳에서는 1939년 9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조병창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40년 12



[그림 2] 1940년대 일제의 육군조병창 분포

- 2) 현재의 일본 규슈 지방 북부의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기타규슈시(北九州市)의 고쿠라키타구(小倉北區) 및 고쿠라미나미구(小倉南區)를 아우르던 지명이다.
- 3)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동베이(東北) 지방에 있는 랴오닝성[요녕성, 遼寧省]의 성도(省都) 선양(瀋陽)의 옛 지명이다.



[그림 3] 1920년대 지형도에 표시한 인천육군조병창 부지 일원

* 주: 지도에서 산곡리(山谷里)와 대정리(大井里)는 현 산곡동, 부평동에 해당한다. 청천리(淸川里), 갈월리(葛月里), 효성리(曉星里)는 각각 현재의 청천동, 갈산동, 계양구 효성동이다. 지도 상단에 '富'이 기입된 곳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통치행정적 중심지였던 부평 읍치(邑治, 현 계양구 계산동 일대)이다.

월 1일 준공했고, 1941년 5월 제1제조소의 개창식이 열렸다.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서기 직전 부평 지역에는 일본군 제20사단이 관할하던 군사훈련소 부지가 있었다. 일본 육군은 조병창 건설을 위해 조선군 제20사단 소관 부평연습장 부지 72만 8천 평을 이관 받는 한편, 현재의 산곡동과 부평동 일대의 토지 약 43만 평을 매수하였다(김현석, 2014, 38; 이완희, 2014, 421).

인천육군조병창은 군용 시설이었지만 실제 건축은 민간 업체가 하청을 받아 수행하였다. 다다구미[多田組], 다마보구미[玉操組], 간토구미[關東組], 시미즈구미[清水組] 등의 대형 건설회사가 하청 업체로 참여했고, 이들 회사의 노무 작업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역 조직인 근로보국대⁴⁾가 파견되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40년대 인천육군조병창의 월간 생산량은 총검 1만개, 소총 9천정, 30kg 이하 소형 폭탄 2천800개, 50~100kg 중형 폭탄 2천개에 달했다.⁵⁾

당시 일제는 군수산업이 한 국가의 공업 발달 수준 전체를 판단하는 가능자라고 하면서 자국의 관영군수산업(官營軍需産業)은 그 규모에 있어 서양 열강에 비해 우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⁶⁾ 그리고 근대의 전쟁은 점차 기계화, 화학화 되고 있고, 동시에 일국주권자(一國主權者)의 사전적(私戰的) 성격을 갖기보다는 전국민적(全國民的) 전쟁이라 보았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의 산업 전체가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임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당시 일제가 인천육군조병창의 국가적, 경제적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인천육군조병창이 개창하기 이전부터 부평 지역에는 히로나카 상공[弘中商工]⁷⁾ 부평 공장(1937)을 비롯해 (주)국산자동차공업 부평공장(1937), (주)디젤자동차공업(1937), (주)경성공작(1939), (주)니혼고주파중공업(1939), (주)도쿄자동차공업(1939), (주)부평요업(1939), 오사카섬유공장(1939), (주)고요정공(1942) 등 기계 화학 관련 공장들이 입지해 있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이르면 인천육군조병창의 본격 운용과 함께 도쿄제강, 미쓰비시 제강, 조선베어링 등과 같은 민간 하청 공장들이 추가로 들어섰는데(정혜경, 2016, 95), 이는 조병창 제조소와의 하청 계열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조병창 일대는 거대한 군수공업지역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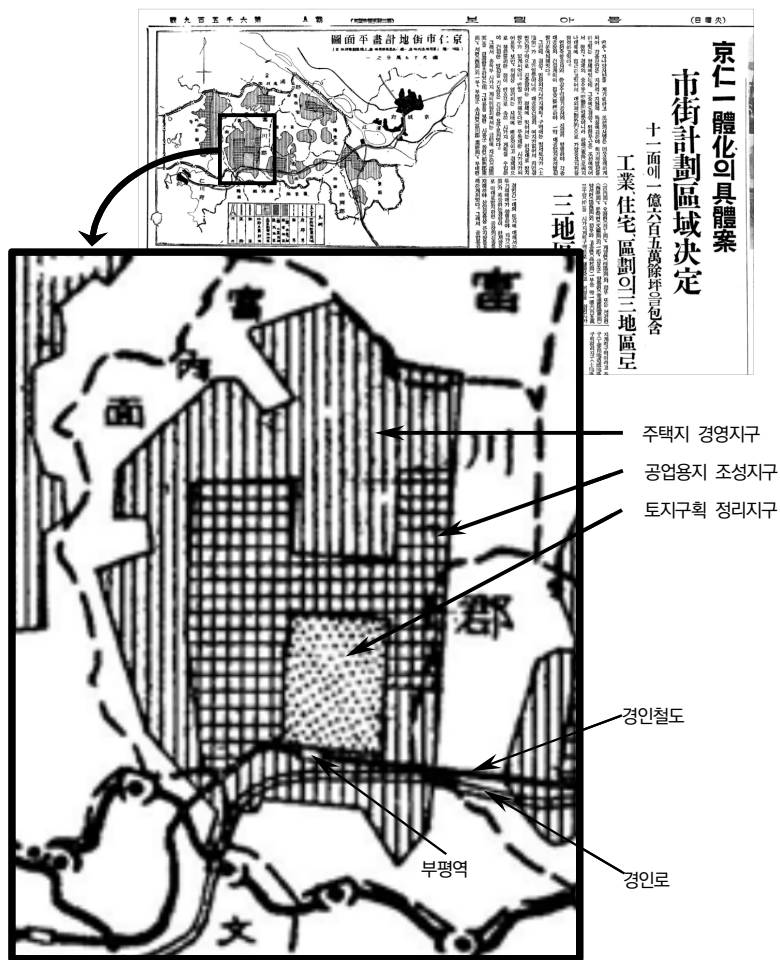
4) 일제가 중일전쟁과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공포한 「국가총동원법」(1938.04.01.)에 의거 학생, 여성, 농민 등의 소위 '임시 요원'을 강제로 동원했던 노동력 조직이다.

5) 이완희, 2014,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421.

6) 「武器禁輸와 日本軍事工業, 그 影響은 何如[七]」(동아일보, 1933년 3월 21일, 석간 6면)

7) 히로나카 상공[弘中商工]은 지금의 부평공원 위치에 들어섰는데, 1938년에 착공해 1939년 완공됐으며 주된 생산품은 철도차량과 광산기계였다. 그러나 히로나카 상공은 경영난으로 인해 1942년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매각되었고, 이렇게 탄생한 미쓰비시 부평 공장은 그 후 (주)미쓰비시제강의 상인천제작소(上仁川製作所)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들 공장의 입지와 함께 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 수도와 전기가 보급되었고, 현장에서 근무할 노무자들이 부평으로 모여들면서 인구도 급증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노무자들의 거처를 위한 주거시설도 곳곳에 지어졌다. 히로나카 상공, 동경자동차 공업, 동경제강 등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들이 조병창 인근에 입지하며 직접 사택을 조성하였고, 조병창 노무자를 위한 경인기업 주택과 같이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과, 인천부나 조선주택영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보급한 관영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자 주택이 부평 지역에 들어섰다(배성수, 2021, 11).



[그림 4] 경인시가지계획의 <부평 지구>

(자료: 동아일보 1939년 10월 3일, 조간 2면.)

* 주: 경인일체화(京仁一體化)를 위한 구체적인 안으로 경인시가지계획구역을 결정하였다는 기사이다. 이 계획에 제시된 용도 지구는 3가지로, 주택지 경영지구, 공업용지 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가 그것이다. 위 지도에서 부평역을 거점으로 한 <부평 지구>에 토지구획 정리지구, 공업용지 조성지구, 주택지 경영지구가 계획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경인일체화의 일부로서 부평 군수산업지구의 형성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경인일체화(京仁一體化)’라는 공간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명 ‘소일본(小日本)⁸⁾으로도 불렸던 인천으로부터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중심이던 경성[현 서울]에 이르는 지역을 일종의 연담도시(聯擔都市, conurbation)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다. ‘경인시가지계획(京仁市街地計劃)’이 그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일대 군수산업지구의 건설은 이러한 경인시가지계획의 본격적 실행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인천육군조병창은 당시의 경인시가지계획이라는 보다 큰 틀의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39년 10월 3일자 동아일보는 경인일체화의 구체적 안으로서 경인시가지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그림 4). 이에 의하면,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1945) 이후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커졌고, 특히 경성으로부터 인천에 이르는 지역은 한반도의 중추부(中樞部)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중국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당시 경인 지역은 인천축항공사와 한강수력전기공사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공업단지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다만 토지 가격의 급상승과 무분별한 시가지 개발이 우려되어 경인시가지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경인시가지계획에서는 용도 지구를 총3가지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데, 공업용지 조성지구, 주택지 경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가 그것이다. 이 중 경인시가지계획의 핵심은 공업 용지의 조성이었다. 이에 따라 부평역 일대(당시 부천군 부내면)를 거점으로 한 ‘부평 지구’를 비롯해 구로 지구, 소사 지구, 서곶 지구, 계양 지구, 양천 지구 등이 주요 공업 용지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공업 용지의 조성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주택지라고 보았다. 경인시가지계획은, ‘많은 공장들에서 일하게 될 종업원의 주택 문제는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인 지역의 토지가 현저히 고가인 관계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적절한 주택지 조성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인식하고, 주택지 경영 지구를 미리 계획하여 저렴한 주택지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결정된 부평 지구를 둘러싸는 형태로 주택지 경영지구가 계획되었다(그림 4).

1930년대 후반의 일간지에 실린 ①「경인간(京仁間), 부평광야(富平廣野) 대공장 쟁선 진출(大工場爭先進出)」, ②「공업지(工業地) 부평평야(富平平野)에 부금철도부설계획(富金鐵道敷設計劃)」, ③「행운(幸運)의 부평평야(富平平野) - 십년(十年) 후 백만명(百萬名) 포용(包容)」 등등의 아래 기사는 경인시가지계획에 따라 기대되는 부평 지구의 미래 모습을 당시 어떻게 그리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8) 전종한, 2011, “일제강점기 일본식 지명의 생산과 장소의 정치 - 원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23(2), 172.

① 최근 경인선에 인접한 지대를 중심으로 내선(內鮮) 대재벌(大財閥)이 속출하여 바야흐로 짙어가는 봄기운과 함께 **경인일여(京仁一如)의 구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제에, 또 다시 부평평야에 대공장이 들어선다는 명량한 뉴스. **미쓰비시[三菱]** 대재벌이 화학공장(化學工場)을 건설하고자 부지 매수에 삼파전의 호화막이 전개되자 자본금 이천만원의 **조선국산자동차공업(朝鮮國產自動車工業)**의 자동차 공장을 부평에 건설된다는 것은 이미 본 신문이서 보도한 바이지만 요즘 **나고야[名古屋] 착암기 제조회사(鑿巖機製造會社)**에서는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광산용 착암기 제조공장을 조선에 건설하고자 일찍이 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평역 인근에 오만여 평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빈약한 조선 영화계에도 영화 회사가 속출하여 벌써부터 **내지(內地) 영화사**에서는 조선 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며 … (중략) … 부천군 군내면 대정리(大井里)에 약 이십만을 매수키로 계약하였다 한다. 이제 촬영소를 건설하면 즉시 제1회 ‘로케이손’을 개시하리라는데 조선 풍속과 풍미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을 하여 조선에 흥행할 계획이라 한다.⁹⁾

② **경인일원화**에 수반되어 **공업지로서 호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인선 부평 일대의 부평평야는 이미 중공업 국산자동차를 비롯해 각종 대공장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부평평야의 공장 지구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장 유치 운용과 함께 교육, 문화, 교통 등 제반 시설**을 완비하여 인구 이만(二萬)명을 목표로 한 읍(邑)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부천군내 관민 유지를 망라하여 **부평 번영회**를 조직하고 당국의 지원을 얻어 적극적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 (하략) …¹⁰⁾

③ **경인일체화**의 구체안으로 경성과 인천의 중간지대에 삼(三)개군 십일(十一)면 일억육백오만(一億六百萬)여 평을 포용하는 시가지 계획구역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음은 세민주주의 일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진출하는 대소(大小) 공장으로 부평 평야에는 **십년(十年) 후에는 백만(百萬) 인구**를 포용하게 될 것이라 한다.

현재 경인선에 진출한 공장 수만 십 여 개에 이르며, 직공(職工) 일만 명 이상을 요하는 공장이 속속 건설될 것인즉, 경인선 **부평역전(富平驛前)**에만 **이삼년 내에 삼만(三萬) 인구**를 수용할 소도시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일반의 정평이 되어 있는 터이다. 이상과 같이 가속도적으로 팽창하는 인구와 함께 **교육(教育) 및 사회(社會)의 병행적 시설**은 긴요한 바라 한다.¹¹⁾

위 기사들을 보면, 부평 지역의 공업지구 개발을 바라보던 당대 사회의 시각을 볼 수 있다. 첫째, 부평 지역의 공업지구 조성은 경인일체화 혹은 경인일여(京仁一如)의 구현의 일환이었다는 점, 둘째 경인철도 부평역 인근은 공업지구 조성의 호조건(好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 셋째, 부평 공업지구에는 미쓰비시 화학, 조선국산자동차, 나고야 착암기, 본토의 영화사 등등 당대의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었다는 점, 넷째, 이곳에는 공

9) 「경인간(京仁間), 부평광야(富平廣野) 대공장쟁선진출(大工場爭先進出)」(동아일보, 1938년 3월 2일, 조간 7면)

10) 「공업지(工業地) 부평평야(富平平野)에 부금철도부설계획(富金鐵道敷設計劃)」(동아일보, 1938년 9월 23일, 석간 7면)

11) 「행운(幸運)의 부평평야(富平平野) - 십년(十年) 후 백만명(百萬名) 포용(包容)」(동아일보, 1939년 10월 6일, 석간 2면)

업지구뿐 아니라 교육, 문화, 교통 등 근대도시 형성에 요구되는 제반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 다섯째, 관(官) 주도의 도시계획과 함께 부평 번영회라는 민간단체가 조직되어 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경인시가지계획 중 유일하게 부평역 인근에만 계획된 ‘토지구획 정리지구’라는 특별 용도지구이다. 자료에 의하면, 부평역 인근을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결정할 때에는 이곳을 주택지 경영지구로 계획하는 것보다 토지구획 정리를 시행해가면서 적절히 시가지 조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종의 자유 용도지구였던 셈이다.

3. 인천육군조병창의 잔존 경관에 대한 입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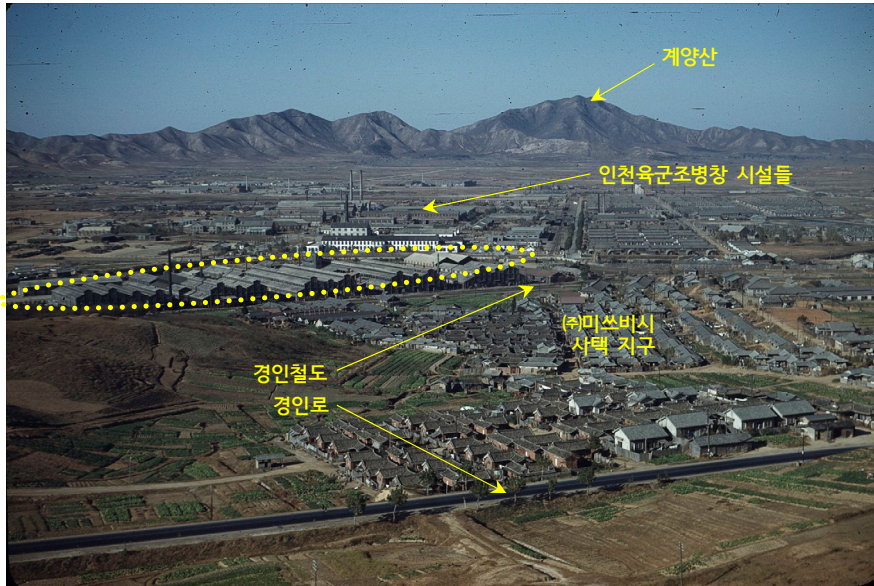
1) 광복 이후 인천육군조병창의 전용(轉用)과 현재

2021년 기준 부평 지역의 아시아태평양 유적은 총31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각종 생산 관련 유적이 20개소, 군사 유적이 8개소, 기타 3개소로 분류된다(정혜경, 2021, 77). 이 중 생산 관련 유적의 다수는 군수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 일제가 패전할 당시 한인을 동원했던 인천 지역 군수 공장은 총61개소였는데 이중 약 25%인 15개소가 부평 지구에 분포하였다(오미일, 2017, 90).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및 이곳과 전후방 연계로 결합되어 있던 ㈜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조소 등의 잔재들이다(그림 5).¹²⁾

광복 직후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한 부평 지역의 군수산업지구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24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 24, ASCOM24)가 들어섰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국군 제2조병창으로, 전쟁 이후에는 포로수용소 및 미군 보급부대인 애스컴시티(ASCOM City, Army Service Command City)로 전용되었다. 이곳의 애스컴시티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군수 보급과 장비 운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그림 6).

애스컴시티는 캠프 마켓, 캠프 그란트, 캠프 타일러, 캠프 해리스 등등 7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 이후 철수하였다. 다만 캠프 마켓은 미8군에 소속되어 제빵 및 분식품의 제조, 저장, 보급을 담당하던 부대로 1990년대 전국적인 미군부대 반

12)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홈페이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의 과거와 현재,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8784>)



[그림 5] 광복 직후의 쭈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점선 부분)와 주변 경관

(사진: 1948년 10월 9일, 미군 촬영, ©Norb Faye / flickr)

* 주: 타원형 점선 안 시설들이 쭈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이다. 쭈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를 따라 평행으로 달리는 직선이 경인철도이고, 사진 아래의 직선형 신작로는 경인로이다. 쭈미쓰비시 상인천제작소 뒤편으로는 여러 채의 대형 건물과 굴뚝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는 일제 인천육군조병창의 잔존 경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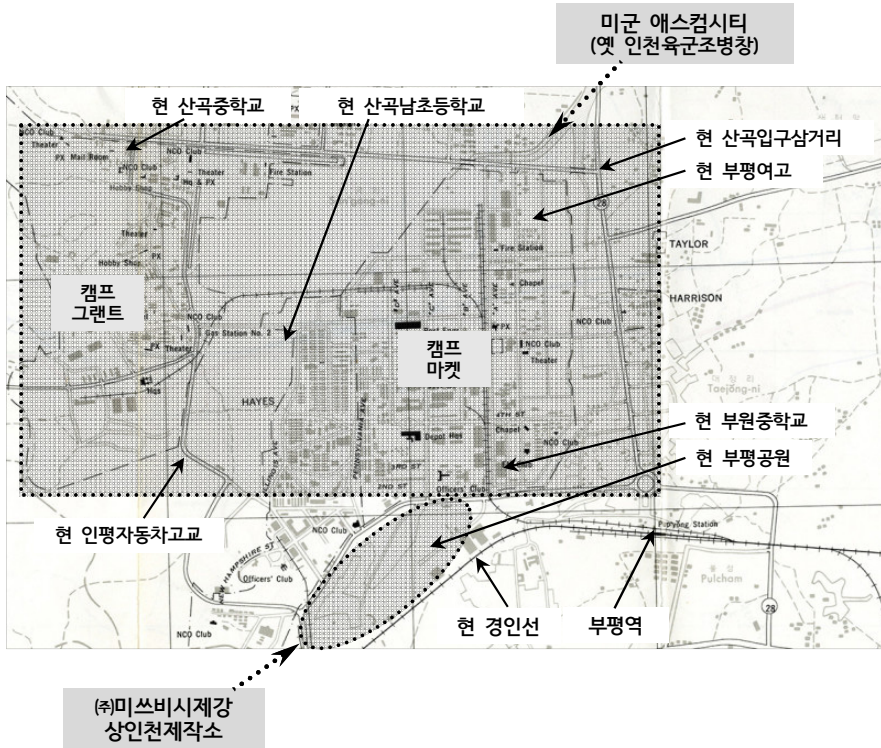
환 운동이 전개될 때까지 이곳에 주둔하였다. 2019년 12월 11일 국방부는 인천시에 캠프마켓 1단계 구역의 반환 협약을 하였고, 2022년 말까지 환경 기초 조사를 거쳐 완전 반환하기로 예정되었다.

2) 잔존 경관(relic landscape)에 대한 입장들과 쟁점

2020년 1월 29일 문화재청은 부평의 캠프마켓 부지 반환에 즈음하여 이곳에 남겨 있는 인천육군조병창 잔재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9년의 즉시 반환으로 출입이 가능해진 구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반환이 이루어지는 대로 차후에 조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문화재청의 장기적 조사 범위는 캠프마켓 44만5천여 평방미터 규모 부지에 남아 있는 건축물 전체이다.¹³⁾

문화재청은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구역 내 시설물 조사를 통해 26개 시설물 중 6개

13) 「문화재청, 부평미군기지 내 일제 조병창 유적 조사」(연합뉴스, 2020.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97900065?input=1195m>)



[그림 6] 해방 후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를 접수하고 들어선 미군 애스컴시티

* 주: 캠프마켓, 캠프그랜트 외에도 캠프테일러, 캠프해리스 등의 부대명이 기입되어 있다. 경인선 부평역에서 옛 조병창 구내로 연결된 철도 지선(인입선)이 보인다.

** 미군 애스컴시티 지도(1960년대, 부평역사박물관 소장)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주요 지점의 위치 또는 범위를 표시함.

가 보전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6개 시설물이란 조병창의 핵심 시설이었던 주물 공장, 탄약고, 정문 게이트, 경인선 부평역과 조병창 주요 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가설된 철도 지선(인입선), 굴뚝 2개로 알려졌다(그림 7 참조).¹⁴⁾ 하지만 문화재청과 국방부의 입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다. 국방부는 ‘완전한 토양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병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재청은 ‘반드시 보존해 향후 면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¹⁵⁾

한편 국방부는 부대 내 토양 오염 정화가 부지 반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부지 반환에 앞서 우선 한국환경공단에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위탁하였다. 2019년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부지 내 일부 토양에서 기준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캠프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정화 예정 구역 내 시설

14) 「부평미군기지 DRMO(군수품 재활용 사무소) 구역 6개 시설물 존치」(경인일보, 2019.09.30.)

15) 「인천 부평미군기지 내 일제 병원 철거 놓고 갈등 심화」(연합뉴스, 2022.12.08.)



[그림 7] 캠프 마켓에서 확인되는 인천육군조병창 잔존 경관

* 주: 위 사진은 해방 직후(1948년)의 경관이고 아래는 오늘날(2022년)의 경관이다. A는 문화재청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주물 공장 굴뚝으로 보이고, B와 C는 2022년 말 반환 예정인 캠프마켓의 주요 구역이다. C에 보이는 길게 늘어진 흰색의 2층 건물은 옛 조병창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D는 2019년에 반환된 곳으로 최근 보존과 철거 의견이 엇갈리는 조병창 병원의 측면 시설(1780호 건물)이다.

물 6개 가운데 문화재청이 보존을 권고한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주요 시설물을 존치한 재정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물은 조병창 주물 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굴뚝, 철도 지선과 플랫폼 등이다.

지자체인 인천시와 부평구는 토양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병창 일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반전·평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캠프마켓 주변에는 조병창에서 만든 무기를 보관한 함봉산 지하토굴, 조병창 하청기입 노동자 숙소인 미쓰비시 줄사택 등이 남아 있다. 이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¹⁶⁾

16) 「부평 미군기지 안 ‘일본육군 조병창’ 역사문화공원 재탄생」(한겨레, 2019.12.19.)

최근에는 옛 조병창 병원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측면 시설(캠프마켓 1780호 건물)의 보존과 철거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이 건물의 하부 토양에서 기준을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측정되었고, 이에 국방부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철거에 착수했던 일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그림 8] 인천육군조병창의 병원 시설로 추정되는 1780호 건물
(자료: 인천시)

* 이 건물의 위치는 [그림 7]을 참고

조병창 병원은 원래 긴 형태의 2층 벽돌 건물이었으나 6.25전쟁 때 중앙부가 훼손되자 중앙부 자리를 철거하고 양쪽 날개 건물을 분리하였다. 그 뒤 동쪽 건물은 막사 건물로 재건축되었고, 서쪽 건물은 2층을 철거한 채 1층만 장교 클럽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한다. 이 건물이 바로 국방부가 철거하려 했던 건물이다(그림 8).

국방부는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라는 시민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작업 사흘만에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 추진위원회>라는 또 다른 시민 단체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오염물질의 완전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인천시는 위의 두 시민 단체 대표자와, 학계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인천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의 팽팽한 찬반 의견은 계속되었다. 찬성 측의 대체적 입장은 ‘주민 생명권이 중요하므로 오염된 토양 정화를 위해 병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고 건물 철거 및 토양 정화 작업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었고, 반대 측은 ‘조병창 병원 건물은 1940년대의 일제 침략과 강제 노역의 역사적 현장이자 흔적으로서 역사·문화적 유산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원형 보존은 어렵다.’는 수준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철거 찬성 측에 의견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⁷⁾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캠프마켓(B구역)의 토양 오염 정화를 2023년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건물을 보존할 경우 법정 기간 안에 완전 정화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의거해 환경부가 해당 구역을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정화 작업에 기간 제

17) 「캠프마켓 조병창 철거 ‘고수’하는 인천시 ... 간담회는 도돌이표 늘」(경기신문, 2022.12.07.)

한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위해성 평가 대상 지정 신청’ 건은 건물을 보존하는 쪽으로 완전히 합의되었을 때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건물 보존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¹⁸⁾

4. 가치 인식 및 활용 방향 재설정을 위한 선결 과제

1) 중층적 유산 성격에 근거한 복합적 가치 인식

2022년 말 지자체와 시민에게 반환 완료 예정인 옛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활용 방향은, 적어도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크게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를 선행한 자연·생태 공원화>와 <주요 역사적 건물의 보존을 우선순위에 둔 역사·문화적 장소화>, 이렇게 두 갈래의 상반된 흐름이 있다. 두 흐름 공히 토양 오염 정화를 전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는 ‘효율적이고도 완전한 정화 작업에 필요하다면 잔존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역사성을 가진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정화 비용이나 정화 작업의 기간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 사회의 상반된 입장을 포함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의 여러 입장이 나 최근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다보면 다분히 결여된 부분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천육군조병창 잔존 경관의 유산 가치 자체에 관한 것이다. 조병창의 유산 가치 자체를 근거로 어떤 시설의 보존이나 철거 여부, 혹은 부지 재활용 문제 등의 논의가 후속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 역시 조병창 일부 시설의 철거나 보존 문제, 부지 재활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보도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을 뿐, 조병창의 다면적 유산 가치에 대한 탐색이나 이에 관련된 학술적 성과의 공유 작업은 뒷전으로 밀린 양상이다.

사실 그간 조병창의 유산 가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상의(2019)는 일제 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구성과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이곳이 일제만의 시설이 아니라 조선인과 깊이 연루된 장소임을 밝힌 바 있다(이상의, 2019). 조건(2021)은 일제 말기에 인천육군조병창의 주요 시설을 인근의 산지에 수평으로 굴착한 지하 시설에 은닉하기 위한 지하화가 시도되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의 강제 동원 피해가 있었음을 구명하였다(조건, 2021). 이연경(2022)은 경인시가지 계획 및 군수산

18) 「인천 캠프마켓 조병창 문제 ‘소통간담회’ 입장차 뚜렷」(경인일보, 2022.12.07.)

업도시 부평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인천육군조병창에 접근하면서 보다 거시적인 공간 스케일에서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공간 성격을 드러내는 한편, 다양한 옛 사진과 문헌 자료에 근거해 조병창 내부의 주요 시설을 이전의 어느 연구자보다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이연경, 2022).

조병창 외에 주변에 분포하던 관련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 저술들도 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나 산곡동 영단주택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평역사박물관(2015; 2016)에서는 부평 산곡동의 근로자 주택지(영단주택지)가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한국인 근로자 사택으로 조성되었으며 당시의 건축 구조, 공동우물, 복리후생시설, 소방도로 등의 시가지 계획을 알 수 있는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한 바 있고(부평역사박물관, 2015), 부평 원도심의 삼릉 지역에 위치한 미쓰비시 노동자 사택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기록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부평역사박물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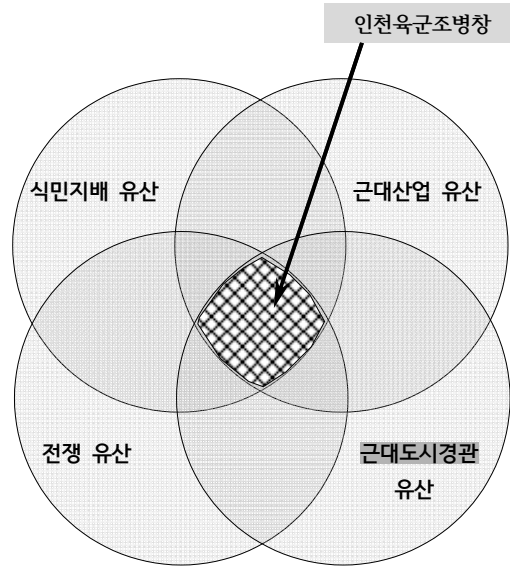
조정규(2018)는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에 조병창이 들어서면서 특히 삼릉 지역의 미쓰비시 사택과 산곡동의 영단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들이 비록 부(負)의 경관이지만 네거티브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조정규, 2018). 최진성(2018)은 경인철도가 부설되고 부평역 일대가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 등의 근대종교경관이 신부평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점과, 이러한 종교경관이 근대이행기의 지역 경관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의 문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최진성, 2018). 이연경·홍현도(2019)는 부평 미쓰비시 사택이 갖는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건설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연계하여 도시적, 건축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이연경·홍현도, 2019).

이상과 같은 유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부평조병창의 부지 반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최근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및 대부분 언론 매체는 기존의 연구 목록이나 주요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시민사회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1940년대 일제침략과 강제징용 역사를 담은 역사문화유산’이라는 비교적 단순화된 가치만이 상정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시설 철거나 보존 여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문제, 부지 재활용 문제 등에 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소모적 갈등보다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밝혀지거나 논의된 다면적인 유산 가치를 중심에 두는, 가치 인식에 초점을 둔 활발한 사회적 논쟁 단계이다.

특히 인천육군조병창의 유산 가치에 접근함에 있어 이 일대 유산의 중층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림 9). 최근의 지자체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비롯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곳의 중층적 유산 성격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식민지배 유산 또는 전쟁유산 또는 근대산업유산 중 어느 하나로 단조롭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천육군

조병창은 식민지배 유산이면서 근대산업 유산이고 동시에 전쟁 유산이다.

이러한 ‘복수의 범주’에서 그 가치가 ‘복합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구(舊) 일본 제국주의나 서양 열강들의 근대산업유산, 전쟁유산, 식민지 유산과 차별되는 인천육군조병창의 고유한 유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로 이어질 길도 열린다. 이 같은 중층적 유산 가치의 복합적 인식이 없이는, 유사한 성격의 유산인 일본의 군함도와 어떻게 그 가치나 활용성을 차별화할 것인지, 산업혁명기 이후의 서양 근대산업유산과는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림 9] 인천육군조병창의 중층적 유산 성격

2) ‘근대도시경관의 형성과 변모’라는 진화론적 관점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완결성 있는 근대도시경관’이라는 관점에서 인천육군조병창의 유산 가치를 통시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도시경관과의 대비 및 국토 공간의 재구조화를 야기했던 근대도시경관의 형성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조병창과 군수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 지구와 경관 요소를 통시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말한다. 이렇게 도시경관의 진화라는 관점을 동원하게 되면 전통도시경관과의 대비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부평 지역에 들어선 에스컴시티 및 신촌(新村)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문화 지구까지도 통시적으로 연결하여 유산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근대성(modernity)이란 전통 시대에 비해 합리성과 효율성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인간중심주의 및 시장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하며, 동질성과 표준화의 경향성이 강해지는 시대나 사회, 혹은 양식이나 이념을 의미한다(Atkins, et al., 1998, 197-198). 근대도시는 이러한 근대성이 지배하는 도시를 말하고, 근대도시경관이란 그러한 근대도시들이 표출하는 도시경관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근대도시경관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전통도시경관과 대비되는 형태와 기능상의 변혁이었음은 물론이고 매우 급격한 사회·공간적 재편이었다는 점이다(전종한,

2004).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도시 계획은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 그 효시로 보이지만 그것은 치도사업(治道事業) 중심의 것이었고(김광우, 1991), 지역적 규모(regional scale)에서 기존 경관 대비 완전히 새로운 근대도시경관을 탄생시킨 대표적 사례는 ‘경인시가지계획’에 의한 부평 지구의 시가지 계획일 것이다.

경인시가지계획이 비록 자생적인 기획은 아니었을지라도, 식민지적 근대도시경관 속에서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적응하며 나름의 근대적 생활을 꾸려간 삶의 주체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도시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근대도시라는 낯선 환경에서 분투하며 끝내 삶을 이어갔던 그들의 생활 흔적은 오늘날까지 도시 내의 다양한 장소와 경관의 형태로 곳곳에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근대도시의 역사·문화적 ‘장소’와 ‘문화경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장소감 증진 및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에도 틀림없이 기여할 것이다(전종한, 2017, 8; 2018, 2).

나아가 근대도시경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천육군조병창은 부평 지역의 군수산업지구를 구성했던 주요 시설의 하나이고, 이 군수산업지구는 부평 지역에 계획된 공장용지 조성지구로서 주택지 경영지구 및 토지구획 정리지구와 공존하도록 조성했던 3대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보다 넓은 공간 스케일에서는 경인시가지계획의 일부로서 부평 지역에 탄생했던 근대도시경관이라는 위상 속에서 포괄적으로 조망 가능하다.

조병창의 잔재 경관을 비롯한 부평 지역 근대이행기의 공장용지 유산과, 영단주택이나 미쓰비시 사택과 같은 근대 주택지, 그리고 근대적 종교·문화 및 상업지구로 채워졌던 부평역 일대의 토지구획 정리지구 등은 근대적 도로와 철도로 연결됨으로써 ‘완결성 있게 창출된 근대도시경관’이었다. 부평 지역의 이러한 근대적 자산과 장소들을 제각기 별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와 각 부분 간 관계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직교형 및 방사형으로 탄생한 근대적 도로와 철도망은 도시 전체와 도시 내의 부분 간, 그리고 각 부분과 부분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인시가지계획 속의 부평 지구를 또 하나의 전체로서 조형하였다. 이곳의 근대도시경관은 전체이고, 산업지구, 주택지구, 상업지구 등의 용도지구 경관은 각 부분이며, 조병창은 산업지구라는 특정 부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고, 도로와 철도는 그곳에서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및 흐름을 담당하던 네트워크였다. 이 같은 근대도시에서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도시의 그것과는 다른 공간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꾸려가며 한국적인 근대도시경관의 진화에 합류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 내 토지 이용을 공업지구, 주택지구 등의 용도에 따라 분할 구획하는 용도지구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인시가지계획에서 제대로 시도된 것이다. 용도지구제는 전통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근대도시경관의 핵심적 특징이다(Ward, D. and O. Zuns, 1997, 19). 넓은 의미의 부평 지역은 오늘날의 계양구와 부평구, 서구, 경기도 부천시 일부를 포

괄하는 공간으로서, 조선시대의 부평 치소(현 계양구 계산동 일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통도시경관과 경인선 부평역 일원에 계획되었던 한국 최초의 ‘완결성 있는 근대도시경관’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같은 포괄적 유산 가치의 인식은 전술한 복수 범주의 복합적 가치 인식과 더불어 인천육군조병창의 가치 인식 및 향후 활용 방향의 재설정을 위해 긴요한 부분이다.

3)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제고 전략

인천시와 부평문화원 그리고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인천육군조병창 잔재와 함봉산 지하토굴, 미쓰비시 사택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종종 표명한다.¹⁹⁾ 하지만 이곳의 세계유산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 ‘반전과 평화를 위한 유산 가치’, ‘마주하기 불편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장소’ 등등의 단편적 견해만 있을 뿐, 국내외의 여타 유사 사례와 비교해 이곳이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 초점이나 논리가 불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 가치 제고 방향 및 전략부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잔존 경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반전과 평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내세우는 전략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리 유효하지도 않다고 본다. 이것은 해당 유산이 지닌 가치의 본질을 드러내주기보다는 부차적 활용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떤 등재 기준을 타겟(target)으로 삼을 것인지 설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천육군조병창의 경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단계하다.

여기서 인천육군조병창의 가치를 논할 때 종종 언급되는 일본의 군함도(軍艦圖)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본의 군함도가 포함된 세계유산 지역의 정확한 명칭은 <일본 메이지 산업 혁명 유적지: 철강, 조선, 그리고 석탄 채굴>이다. 이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ii)와 (iv)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등재 기준 (ii)와 (iv)는 아래와 같다.

- (ii) 오랜 기간 혹은 특정 문화 지역 안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작품, 도시 계획이나 경관 디자인의 발전과 관련하여 인류 가치의 중요한 상호 교류를 드러내는 것인가

19) 「[일본육군 조병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부평문화원」(연합뉴스, 2019.12.1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9101800065>)

- (iv) '인류 역사상의 어떤 중요한 단계(들)를 대표하는 건물 유형, 건축 또는 기술의 조합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에 해당하는가

일본은 군함도가 포함된 일본 규슈 일대의 근대산업유산에 대해 '서양과 일본이 산업혁명을 매개로 교류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등재 기준 (ii)의 충족]과, '서양적 산업 기술을 수용하되 비서구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독특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점'[등재 기준 (iv)의 충족]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인정되었다. 당시 일본은 산업혁명을 매개로 서양과 일본이 교류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적인 방식으로 산업혁명을 이루었다는 점과 비서구권 최초의 성공적 산업혁명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물론 주지하듯이 조선인의 강제 동원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인천육군조병창 일대의 유적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의 어떤 가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아마도 일본의 군함도 사례와 동일하게 등재 기준 (ii)와 (iv)가 적절할 것이다. 그러면 군함도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도모할 것이며, 어디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여기서 '근대도시경관'이라는 유산 범주는 검토해볼 만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치 진술이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등재 기준 (ii)의 충족 관련

- 인천육군조병창 일대의 유적은 식민지 국가에서 근대 산업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이는 서양의 산업혁명이 비서구권 국가들로 확산된 인류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특히 서양적인 근대 산업이 식민지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며, 서양의 근대산업이 어떠한 식민지 전략과 결합되어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단절을 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세계 각지에서 전개된 근대 산업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등재 기준 (iv)의 충족 관련

- 비서구권의 식민지 국가에서 출현한 근대도시경관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독특한 증거이다.
- 이는 식민지배 과정에서 유입된 근대도시경관으로서 서양의 근대적 도시경관과 제국주의적 의도와 식민지 국민들의 삶과 애환이 결합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징성을 내포한 매우 특별한 문화경관이다.
-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여러 난관 속에서 근대적인 생활 방식과 대중음악을 비롯한 서양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시켜왔음을 증거하는 독특한 역사·문화적 현상이다.

물론 위 진술들은 가설적인 것이다. 연구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그 활용과 관련된 방안보다는 세계유산의 본질과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증거, 인류 사회의 문화 간 교류의 흔적 등등과 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 다른 스케일의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이 설정

되어야만 비로소 어떤 특정 장소나 경관 요소들을 보존할 것인지 아닌지가 보다 선명해지고, 경관 복원이나 잔존 경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 등 헤리티지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논의로 진전할 수가 있다.

5. 맺음말

일제강점기의 인천육군조병창 잔존 경관을 ‘반전과 평화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과연 이러한 활용 방향이 적절한 것일까? 만약 메인테마(main theme)로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본다. 그것은 과거에 제국주의를 범했던 국가들이 자국의 과거 잘못을 자성하는 맥락에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전과 평화’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평화를 깨뜨린 가해자 측에서 자국에 소재하는 전쟁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할 때 그것은 주된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를 겪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전과 평화’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인천육군조병창과 같이 식민지에 건설된 구(舊)제국주의자들의 유산을 우리가 반전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쟁과 식민지배의 피해자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평화를 깨뜨리지 말자’는 테마보다는 이에 우선하는 활용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식민 지배로 인한 불행이나 고통을 겪었던 우리에게 ‘식민 지배의 피해상’, ‘식민 지배의 극복 과정’, ‘독립 이후의 발전상’, ‘국토 공간의 중요성’ 등등 국토를 잃었을 때의 아픔과 교훈을 공유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적절할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에 내포된 중층적 유산 가치의 복합적 인식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가 조성한 부평 지역 군수산업지구의 일부이다. 군수산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근대산업유산의 범주에 해당한다. 오늘날 근대산업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을 비롯해 글로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관점을 포함해 근대산업유산을 바라보는 현대의 지배적인 시선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산업 발달사(産業發達史)에 중심을 두고 있다. 산업 혁명을 주도했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게 근대산업유산은 집단 정체성과 집단 기억의 재구성을 위해 동원되곤 한다(Rautenberg, 2011). 그리고 종종 지역 재생이나 도시 부흥을 목적으로 박물관이나 문화 공원, 클러스터로 재활용된다.

하지만 탈식민국가의 경우는 근대산업유산의 재활용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거기에는

딜레마가 있다. 식민지 근대산업유산의 인식과 가치 평가에 있어 선택적 기억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간접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Leung, 2009; Wei and Wang, 2022). 가령 인천육군조병창의 경우는 단순히 일제의 근대산업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반도의 사회·문화·경제·역사적 맥락에 깊이 연루된 유산으로서 식민지배 유산이고, 전쟁 유산이며, 전통적 생활 방식과 전통도시경관의 변모 및 국토 공간의 재구조화를 가져온 근대도시경관 유산임을 상기해야 한다. 누구는 그것을 삭제하고 싶어 하고, 누구는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교훈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며, 누구는 그곳의 암울함을 뒤 덮을 목적으로 현재적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누구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탈식민국가가 자국의 식민지 근대유산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배경의 현대 서양의 여러 나라나 일본의 관점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에게 본토 및 식민지의 근대유산은 산업혁명의 확산과 같은 국가·사회 발전 및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표상하는 자랑스러운 헤리티지로서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틀 안에서 과거의 영화를 회상하거나 자긍심을 갖기 위한 주된 관광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전과 평화라는 자성적 활용 방향도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탈식민국가에게 그것은 단순한 관광 대상일 수 없다. 탈식민국가의 입장에서 식민지 근대유산의 가치를 인식 및 평가함에 있어서는,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 경험, 경제·사회상의 근대적 변화, 전통적 경관과 공간구조의 해체 및 변모 등과 같은 유·무형의 여러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유형, 새로운 범주의 세계유산을 개척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게도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갈 것이다(전종한, 2013, 938). 본고에서 고찰한 인천육군조병창의 사례는 위와 같은 중층적이고도 다면적인 가치 인식과 평가가 우리나라의 근대유산에 접근함에 있어 긴요한 부분임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김광우, 1991,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 한성부 도시개조사업,” 향토서울 50, 95-122.
- 김현석, 2014,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의 형성 배경과 환경,”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11-83.
- 배성수, 2021, “총설,” 부평의 산업과 사회(부평사 제3-1권), 부평사편찬위원회, 10-16.
- 부평역사박물관, 2015,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1.
- 부평역사박물관, 201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3.
- 오미일, 2017, 제국의 관문 개항장 도시의 식민지 근대, 선인.
- 이상의, 2019,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동방학지 188, 107-160.
- 이연경, 2022, “1940년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연구: 역사사화문화 30, 165-208.
- 이연경·홍현도, 2019, “부평 미쓰비시(三菱) 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 - 1930년대 말 부평의 병참기지화와 노무자주택의 건설 -,” 도시연구(역사사화문화) 22, 45-86.
- 이완희, 2014, 한반도는 일제의 요새였다, 나남.
- 전중환, 2004, “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 대한지리학회지 39(3), 321-343.
- 전중환, 2011, “일제강점기 일본식 지명의 생산과 장소의 정치 - 원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23(2), 158-180.
- 전중환, 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929-943.
- 전중환, 2017, “가칭 《경기역사지도집》의 체제 구성과 편찬을 위한 시론,” 기전문화연구 38(2), 1-18.
- 전중환, 2018, “지역 정체성에 기반 한 지역인문학의 융성에 관한 연구: 부평 문화권의 사례,” 기전문화연구 39(2), 1-14.
- 정혜경, 2016, “일제강점기 한반도 강제동원과 미쓰비시,”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64-125.
- 조건, 2021, “일제 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화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근현대사연구 98, 171-214.
- 조정규, 2018, “부평 지역 근대경관의 보존에 관한 쟁점,” 기전문화연구 39(2), 63-83.
- 최진성, 2018, “부평 지역 종교경관의 형성,” 기전문화연구 39(2), 39-62.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홈페이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의 과거와 현재,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8784>)
- Atkins, P.J., I.G. “Simmons and B.K. Roberts, 1998, Modern Urban Landscapes: Modern Cities and City Life,” *People, Land & Time*, 197-211.
- Leung., M., 2009, “Fates of European Heritage in Post-Colonial Contexts Political Economy of

- Memory and Forgetting in Hong Kong," *Geographische* 97(1), 24-42.
- Rautenberg, M., 2012, "Industrial Heritage, Regeneration of Cities and Public Policies in the 1990s: Elements fo a French/British Compa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8(<https://doi.org/10.1080/13527258.2011.637945>)
- Ward, D. and O. Zunz, 1997, *The Landscape of Modernity - New York City 1900-1940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ei, R. and F. Wang, 2022, "Is Colonial Heritage Negative or not so much? Debating Heritage Discourses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Kulangsu, China," *Built Heritage* 6(<https://doi.org/10.1186/s43238-022-00069-7>).

〈신문 자료〉

- 캠프마켓 조병창 철거 '고수'하는 인천시 ... 간담회는 도돌이표 늘
(경기신문, 2022.12.07. 14면,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8699>)
- 인천 캠프마켓 조병창 문제 '소통간담회' 입장차 뚜렷
(경인일보, 2022.12.07.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1207010001290>)
- 부평미군기지 DRMO(군수품 재활용 사무소) 구역 6개 시설물 존치(경인일보, 2019.09.30., 1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929010010212>)

교신 : 전종한,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전자메일: geographical@hanmail.net 전화: 032-540-1220

Correspondence : Jeon, Jong Ha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62 Gyesan-ro, Gyeongin-gu, Incheon 21044, Republic of Korea
e-mail: geographical@hanmail.net, phone: +82-32-540-1220

투고일 2022. 12. 13.
수정일 2022. 12. 20.
채택일 2022. 12. 20.

[Abstract]

Positions and issues Approaching the Value and Utilization of Early-Modern Heritage in Korea

- In Case of Incheon Army Arsenal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

Jeon, Jong Han

In general, in post-colonial countries, discord exists over the evaluation an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early-modern heritage, and the same is true of the Japanese Incheon Army Arsenal(JIAA)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The JIAA was established in 1941 as one of the 8 largest arsenal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and one of the two arsenals built outside the mainland, which were built for the design, production, and storage of weap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IAA was located on a vast flat area around Sangok-ri[山谷里] with good access to *Bupyeong* Station of the *Gyeongin* Railway. The JIAA formed a large-scale munitions industrial complex with a number of companies connected in forward-and-backward linkage, and on a national scale, it was one of the modern urban zoning planned in the *Bupyeong* area as part of the *Gyeongin* Regional City Plan[京仁市街計劃]. Today, the remnants of the JIAA remain in the *Bupyeong-gu*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recently there are often conflicts with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etc. over the value evalu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landscape elements of the remains of the JIAA. One of the important prerequisites to resolve this difference in position and conflict is the mobilization of concepts and theories. Since the relic landscape of the JIAA is a colonial heritage, a modern industrial heritage, and a war heritage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viewed in multiple heritage categories. And on the one ha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various zoning and landscape elements diachronically and comprehensively from the viewpoint of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early-modern urban landscape that caused the contrast with the traditional urban landscape and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land space. An

approach based on these concepts and theories is critical in recognition of values, orientation of utilization, and application as a world herit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approaching colonial early-modern heritage, especially industrial heritage, in post-colonial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be vigilant not to simply borrow from Western countries or Japan, which were former imperialists.

Key Words : post-colonial country, Japanese Incheon Army Arsenal, relic landscape, early-modern heritage, early-modern industrial heritage, early-modern urban landscape, world heritage